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요한손, 내년 회장선거 또 도전

진짜 마지막일까. 지난 1990년부터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있는 스웨덴 출신 레나르트 요한손(77)이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라면서 내년 회장선거에 다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요한손 회장은 12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UEFA 집행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유럽 축구 가족들을 이끌고 봉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난 16년 간의 재임 기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나는 미래를 위해 과거의 유산을 더욱 발전시킬 에너지와 책무가 있다”며 내년 초 있을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토티가 직접 쓴 ‘토티는 못말려’ 유머집 화제



어느날 바티칸의 전설중 하나인 마법의 거울이 발견됐다. 누구든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마법에 걸려 사라진다. 비에리와 가루소, 그리고 토티가 시험을 해보려 했다. 비에리가 먼저 시작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선수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비에리는 ‘퐁’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다음은 가루소. “나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생긴 남자다” “퐁” 소리와 함께 가루소도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토티의 차례. 거울 앞에 선 토티는 불안했다. 집중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는...” “퐁”하고 토티 역시 사라졌다.

2006 독일월드컵축구에서 24년만에 정상에 오른 ‘아주리군단’ 이탈리아대표팀의 미드필더 프란체스코 토티(30. AS 로마)가 자신을 소재로 한 유머시리즈를 모아 직접 내놓은 ‘토티는 못말려!’(김효진 옮김, 황기홍 그림/랜북스)라는 책이 화제다. 위 내용은 이 책의 ‘마법의 거울’ 편에 나온다.

요절가수 김현식 아들 가수 데뷔 준비



34세의 나이로 숨진 가수 김현식(사친)의 아들 완재(24)씨가 가수 데뷔를 준비 중이다. 완재씨는 최근 A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앨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여름께 이 음반을 선보일 계획이다. 발표될 음반의 장르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친이 했던 음악과는 다른 장르가 될 것이라고 A기획사는 전했다.

남도학숙에 장학금·서화 12점 기증



재경 광주·전남 향우회 재경 광주·전남 향우회(회장 임향순·이하 향우회)가 서울지역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 기숙사인 남도학숙(원장 김유배)에 장학금 1천200만원과 서화 12점을 기증했다. 향우회는 남도학숙의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인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모금운동을 펼쳐왔다. 또 향우회가 기증한 서화 12점은 남도학숙 내에 전시돼 학생들이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사진 남도학숙 제공·왼쪽부터 임향순 회장, 김유배 원장, 위동환 사무총장>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시 ‘양성평등 모범 부부상’ 받은 박순호·김복순 씨 부부

“아내 공부 방해될까 월드컵 중계도 안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닮아간다더니 박순호(57·광주시 광산구 월곡동)·김복순(55) 부부가 꼭 그랬다. 28년을 함께 해온 부부의 활짝 웃는 모습은 서로를 무척 닮았다.

이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기 개발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외조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12일 광주시가 제11회 여성주간을 맞아 실시한 ‘양성평등 모범부부상’을 수상했다.

“양성 평등은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희 부부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양성 평등이 이뤄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박씨와 학업에 바쁜

김씨는 함께 있을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 김씨는 뒤늦게 학업의 꿈을 품고 지난해 조선대 한문학과에 입학해 아들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수업때문에 오전 7시 30분에 집을 나갑니다. 그때마다 식사를 차려주고 열심히 하라는 말을 잊지 않는 남편 덕분에 힘을 얻지요.”

남편 박 씨는 아내를 위해 교재를 사다주고 삼백만 원이 넘는 등록금도 가까이 내주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월드컵 기간에는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내에게 방해가 될까봐 월드컵 경기 시청도 자제했다고 김 씨는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겠다는 자신에게 아무런

불평없이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는 남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지요. 아내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이 가장 좋습니다.”

밤 늦게서야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을만큼 하루 종일 바쁜 부부지만 모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함께 여행을 떠난다. 평소어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만큼 부부만의 주말 여행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레고 즐겁다고 한다.

부부는 “평범한 부부인 자신들이 상을 타게 돼 속스럽다”면서도 “와



‘양성 평등 모범 부부상’을 수상한 박순호(왼쪽)씨와 아내 김복순씨. /사진=위성량기자 jrwi@kwangju.co.kr

으로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부부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객선정기자 ks@kwangju.co.kr

“미달이 상처’ 이젠 훌훌 털었어요”

‘강아지 똥’으로 연극무대 도전하는 ‘미달이’ 김 성은



‘미달이’ 김성은(15)양이 긴 집거를 끝내고 생애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도전한다.

김양은 다음달 3-15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공연되는 연극 ‘강아지 똥’ 주인공을 맡아 약 5년 만에 대중 앞에 선다.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의 미달이 역으로 어린 나이에 온 국민이 얼굴을 알아보는 스타가 됐지만 김성은 양에게 미달이는 양날의 칼이었다.

분에 남치는 사랑을 받아 감사한 마음도 컸지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식탐 많고 탐욕스러운 미달이로만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웠다.

가책이나 예민한 사춘기가 닥치자 이런 부담감은 극에 달했다.

2004년 2년 반의 뉴질랜드 유학생활을 접고 귀국해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것도 부담감을 가중시켰다.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뉴질랜드에서는 자유를 만끽하며 누구보다 밝게 생활했지만 한국에 돌아온 뒤로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 주변의 수근거림에 나날이 의기소침해져 갔다.

차라리 아역 탤런트를 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주변 원망도 많았다.

김양은 “아역 탤런트 가운데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고 털어놓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 앞에 서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 순풍산부인과로 인연을 맺은 시트콤의 ‘귀재’ 김병욱 PD가 지난해 새 시트콤 ‘귀엽거나 미치거나’ 출연을 권유했지만 응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4월 연극 ‘강아지 똥’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히딩크, 2006 월드컵 ‘베스트 11팀 감독’에



호주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16강에 올랐던 거스 히딩크(60) 감독이 네덜란드 언론이 실시한 팬 투표에서 2006 독일 월드컵 베스트 11팀의 감독으로 뽑혔다.

네덜란드 축구전문지 ‘풋발인터내셔널’은 12일(한국시간) 거스 히딩크 감독이 독일 월드컵 베스트11팀(월드 엘리트팀)의 사령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풋발인터내셔널’은 독일 월드컵에 참가한 감독과 선수를 대상으로 포지션마다 후보 4명씩 올려놓고, 네티즌 투표로 월드컵 베스트 11팀을 뽑았다.

‘작은 아씨들’ 준 엘리슨 타계



1940~50년대를 풍미했던 할리우드 여배우 준 엘리슨(June Allyson)이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오자이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향년 88세.

엘리슨의 딸 패멀라 엘리슨 파월은 “호흡기 질환과 급성 기관지염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김하늘양·김하늘군 금상 영예

전남도교육청 18작품 출품 금상2, 은상6, 동상10 입상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장환)이 지난 6월 20~22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금상2, 은상6, 동상10개를 포함, 총18작품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남은 이번경진대회에 김하늘(광양제철남초 6·사진 왼쪽) 지도교사 최창준(양)의 작품 ‘건반으로 연주하는 가락학습 도우미 양극’과 김하늘(여수 문수중 2·오른쪽

지도교사 전미정)군의 ‘동과방지용 수도계량기’등 2작품이 각각 금상을 수상하는 등 총 18작품을 출품해 전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같은 성과는 전남교육청이 그동안 발행교실 현대화와 학교발명반, 발명 영재단 운영 등 발명교육 활성화와 창의적 과학체험활동등을 꾸준히 펼친 결과다.

이번 경진대회는 생활과학 I·II, 학습용품, 과학연구, 자원재활용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가 이뤄졌는데 전국에서 총 298작품이 출품돼 경연을 벌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재원 중앙일보 기획실장

신문협 새 기조협의회장에



박재원 중앙일보 전략기획실장이 12일 열린 한국 신문 협회 기조협의회의 임시총회에서 새 기조협의회장으로 선임됐다.

내방

- ▲이정섭 담양군수 ▲라규재 담양군 홍보실장 ▲김범남 광주시 관광체육국장 ▲문봉주 광주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김동용 광주시 서구 부청장 ▲유재철 광주시 광산구 부청장 ▲송상락(재)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오건택 광주시립미술관장 ▲채종기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 ▲임한규씨 장남 종찬(나주보건소 공중보건)군 김기원(전 남광건설 전무)씨 장녀 주미양=15일(토)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김중기씨 아들 용운군 채수삼씨 딸 원경양=22일(토)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그랜드볼룸. 피로연 15일(토) 오후 6시~9시 오페라하우스 2층.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

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동창·동문회

- ▲북성중 제 13회 동창회(회장 박중우) 월례회=13일(목) 오후 7시 일억초.223-7898. ▲재광 무안북중 19회 동창회(회장 김영갑) 월례회=14일(금) 오후 7시30분 삼맛나는 세상. 682-8592. ▲광산 32회(일지모) 동창회=14일(금) 오후 8시 아마기 참치회집. 011-9609-0055

▲광주 호동 32회 정기 단합대회

- =16일(일) 화순군 청풍면 유원지. 오전 9시 모교 운동장 집결. ▲북성중 제 17회 동창회(회장 강지구) 월례회=17일(월) 오후 7시 일송정. 525-9977. ▲북성중 제 15회 동창회(회장 박의재) 월례회=18일(화) 오후 6시30분 삼희식당. 376-3233. ▲경기도 광주·전남 총동창회(회장 조기상)하계 모임=19일(수) 오후 6시30분 금수장호텔 2층 아리랑 하우스 장미홀. 529-2888, 227-4848. ▲정읍 호남고 동문회 모임=20일(목) 오후 7시30분 용봉동 큰바다 해물탕. 011-9609-6780

중진회

- ▲영광김씨 재광중진회(회장 김인규) 월례회=13일(목) 오후 7시

백운산회관. 019-9773-7128

- ▲전주리씨 대동중앙원 광주전남 도지원 이화회(회장 리수복) 월례회 및 이화회·청년이화회·여성이화회 단합대회=15일(토) 오전 10시 광주전남 도지원 회의실. 회의 뒤 담양 가마골 초원의 집 이동.

모집

-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험홀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화훼장식 국비교육생 모집=만 40세이상. 매월 11만원 수당 지급. 문의(재)연세직업전문학교 264-4300,4305. ▲광주 남구시니어클럽 시험감독관 모집=교직·공무원으로 퇴직한

60세 이상으로 모집 인원은 30명. 062-351-5070, 654-6080

-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전맹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과정·뇌병변 특화과정·프로그램 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비 무료. 기숙사 등 편의 제공. 문의 061-320-7051~5.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좌 수강생 모집=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상무시 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속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홍혜선·커튼·퀵트·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족공예 등, 광주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상층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회원 모집=통일 쌀 보내기 와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 431-0035.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매주 일요일 오전11시 광주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있는 분

525-1391

- ▲인우회 회원모집=광주지역 전·외경 전역자들의 모임, 총무 011-606-7789. ▲불림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부음

- ▲송기철씨 별세 길증(영산강구역환경경정 유역관리국장)·종식(사업)·중훈(쌍용정보통신 상무)씨 부친상 정육관(양청구청 여성복지과장)씨 시부상=발인 14일(금) 순천시 한국병원 장례식장 2호실. 061-743-4491

넓고 편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초전). 대표: (062) 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같은특별분양. 전화: (062) 521-1100